

“온가족 손잡고 오세요”

부산 길상사 10월 9일 개원식, 주말 가족 신행 프로그램 풍성



가족들과 함께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부산 길상사가 10월 9일 개원한다.

토요 휴업일 시행과 주 5일제 근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가족 단위의 신행 프로그램을 알뜰하게 마련하고 개원하는 사찰이 있어 관심을 모은다.

10월 9일 개원식을 갖는 부산 길상사(주지 자인)는 가족의 건강과 신행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웰빙 수행 도량으로 가족이 함께 하는 템플스테이, 자녀들을 위한 청소년 한문 학당, 청소년 다도 예절 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도량의 문을 활짝 연다.

특히 길상사는 9일 개원법회와 함께 노인의 날을 기념하며 인근 목거노인들을 초청, 경로 잔치를 열고 100일간 가족을 위한 기도 정진도 입재한다. 100일간 봉행되는

맞춤기도·수행법 직접 지도 소규모 템플스테이도 마련

선량 조상과 가족을 위한 기도는 가족에 대한 참회기도, 가족 인연에 대한 감사기도, 가족에 대한 발원기도로 주제별로 진행되며 매 기도마다 법사를 초청, 주제에 맞는 법문을 듣는 시간도 갖는다.

매월 첫째, 셋째 주말에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두세 가족의 신청을 받아 템플스테이도 소규모로 진행한다. 사찰예절, 108배, 사찰 음식 만들기, 발우공양, 황토방 참선, 봉화산 포행, 다도, 백옥 찜질방 찜질 등의

프로그램을 함께 하며 가족 간의 정을 나누며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게 된다.

주말에 부모와 함께 사찰을 찾는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학업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봉화산 포행과 차를 마시며 주지 스님의 법문도 듣고 고민도 함께 풀어가는 다도 시간도 마련해 놓고 있다.

이 밖에도 가족별로 가족에게 맞는 맞춤형 기도법과 수행법을 직접 지도해주며 가정의 위기를 불교적 가르침을 통해 극복하는 길을 터주는 노력을 이어가게 된다. 가족이 함께 하는 기도와 템플스테이 등을 통해 가족 신행의 장을 마련하게 될 길상사는 고향집처럼 푸근한 도량으로 가꾸어 나가겠다는 포부다.

고향집 같은 넉넉한 공간과 가족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웰빙 도량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길상사는 법당과 불상을 모두 옥으로 조성해 눈길을 끈다. 백옥으로 삼존 불과 전불 등을 조성하고 홍옥, 황옥으로 수미단과 바닥을, 흑옥으로 신중탱화를 조성했으며 법당 바닥도 모두 옥으로 조성하여는 사찰과 차별화된 불사를 마무리했다. 길상사 주지 자인 스님은 “길상사가 사람들에게 푸근한 휴식을 주는 마음의 고향이 되었으면 한다”며 “시골 고향집을 찾아가듯 부담 없이 찾아와 가족이 다함께 수행도 하고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 하겠다”고 말했다. (051)973-5224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사명대사 뜻 기리는 축제 연다

밀양 표충사, 사명제전 10월 8~10일

학술강연회·유물전시 등 다채

밀양 표충사(주지 청운)가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표충사에서 개최하는 사명제전은 나라와 민족의 위대한 스승인 사명대사를 새롭게 조명하는 전국적인 문화 축제로 주목받고 있다.

표충사는 매년 춘계, 추계에 열여섯던 사명대사 향사를 올리는 전국 규모의 문화 축제로 승화시켜 8일 입제식을 시작으로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 행사를 펼친다.

특히 표충사는 이번 축제를 통해 밀양도 예가협회, 밀양차인회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문화를 이끌어가는 중심 도량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밀양시 유림회와 함께 제 524 추계 향사를 장엄하게 치르려 한다.

8일에는 사찰음식 시연회와 전통 다도 및 밀양 도예 시연회, 사명대사 일본 평화 사절단 행렬 재연, 청소년 디지털카메라

콘텐츠 등이 진행되며 9일에는 사명대사 뜻 기리는 백일장 대회, 전국학생웅변대회, 사명대사 학술강연대회, 표충사 산사가 악제가 열리고 임진왜란 당시 사명대사가 일본군 적장과 화의를 담판 짓는 모습을 재현한 영상물을 상영한다.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밀양 작약산 영산재와 밀양유림회와 함께 하는 추계 향사에 이어 시상식을 갖고 회향한다.

표충사 주지 청운 스님은 “승병을 훈련시켰던 표충사에서 열리는 사명제전은 호국불교의 이념을 되살리고 사람들에게 사명대사의 위대함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55)352-1150

한편 부산불교연합회(회장 대성)는 9월 29일 초을 어린이대공원 사명대사 동상 앞에서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사명대사 열반 제 395주기 추모대법회를 봉행했다.

천미희 기자

대한법회 성과 증정 추대식

대한불교법회총(총무원장 해륜)은 9월 28일 고성 안정사에서 제 9대 증정 추대법회를 봉행했다.

제 9대 증정 성과 스님을 비롯 5백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이날 법회는 제 1부 식전행사로 사단법인 대한전통 불교문화 예술원 김진하 원장과 문화사의 영산재가 펼쳐졌으며 2부 행사로 법회가 열렸다. 이날 법회에서 제 9대 증정 성과 스님은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끊어 없애면 억겁의 죄업이 한순간에 스러지는 것이니 모든 중도들은 스스로 망념을 단속하여 부동심을 이루기 위한 정진에 힘써야 한다”고 법문했다.

대한불교법회총은 이날 달마선원 청광 김용대 화백의 시화전과 국악 공연 등 문화행사를 열어 제 9대 대한불교법회총 증정 취임을 축하했다. 천미희 기자

영천 은해사 개산대제 봉행

미타도량 영천 은해사(주지 법타)가 10월 8일부터 9일까지 개산 1196돌을 맞는 개산대제를 거행한다.

10월 8일 오후 3시 개산조 혜철 국사와 역대조사의 차례제로 시작되는 은해사 개산대제는 9일 오전에 한공, 사시예불, 지장보살 점안식이 봉행되고 오후에는 전계사 해인 스님, 교수사 지안 스님, 갈마사 해국 스님을 3사로 모시는 보살계 수계식이 거행된다. 그리고 저녁 7시 30분에는 만등불사 점등식을 갖는다. (054)335-3318

배지선 기자

두승복지관, 봉사사례 발표

두승종합복지관(관장 지현)은 10월 5일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과 올바른 자녀교육’이라는 특강과 자원봉사활동 사례 발표회를 갖는다.

두승복지관 개원 10주년을 기념하며 5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설동근 부산시 교육감이 초청 강사로 특강을 연다. (051)264-9471

천미희 기자

해인사 인도네시아 포교원

‘한국불교문화와 교육’ 행사

해인사 인도네시아 포교원은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엑스포 전시관에서 인도네시아 불교협회장 알루비, 인도네시아 CCM 그룹 회장 부르다 씨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한국불교문화와 교육’ 주제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 기간 중 한국전통한복 20점, 한국사찰음식 전시 및 시식, 서예 및 서군자 70점, 한국승복, 현대의식 및 다도 시연, 찬불가 공연, 불교용품 전시 판매, 연등 만들기 등이 선보였다.

남동우 기자

대흥사 미륵마애불 ‘국보승격’

보물 제48호 ‘대흥사 북미륵 마애여래좌상(사진)’이 국보로 승격됐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최근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대흥사 북미륵 마애여래좌상을 국보 제308호로 지정했다.

이번에 국보로 지정된 마애여래좌상은 공양천인상이 표현된 독특한 도상에 항마촉지인을 하고 있는 여래좌상이다. 높이만 485cm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크고 조각이 유려해 뛰어난 상으로 평가된다. 천인상을 조각한 고려전반기의 유일한 예로 평가되고 있다.



박익순 기자

부석사 화엄축제 개최

10월 8~10일, 탁본체험 등

제3회 부석사 화엄축제가 10월 8~10일 3일 동안 경북 영주 부석사에서 열린다.

8일 오전 10시 부석사 무량수전에서 조사 헌다례를 시작으로 막을 올리는 부석사 화엄축제는 화엄경판을 머리에 이고 법계도를 도는 의상 화엄대제를 비롯해 학술대회, 화엄음악회, 불교공연예술제,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마련돼 있다.

또, 경내 곳곳에서는 범종, 도륜 스님의 부석사 사진 작품전과 시와 부석사 풍경전 등이 개최되고, 탁본체험과 경복전문대학 한국전통문헌센터에서 제작한 부석사 3D영상물 체험 등 다양한 참여 체험 행사도 마련된다. 연계행사로 부석사에서 부석골 사과 축제도 열릴 예정이다. (054)633-3464

배지선 기자

목판인쇄과정·이운행렬 재현

해인사 팔만대장경 축제 10월 7~10일

2005 팔만대장경축제가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합천읍 향강 체육공원과 해인사에서 열린다.

올해로 5돌을 맞는 팔만대장경 축제는 목판인쇄의 전 과정을 한자리에서 감상 체험할 수 있는 목판인쇄문화축제로, 10월 7일 오후 7시 향강체육공원에서 개막식과 기념공연이 펼쳐지고, 7일과 8일 오후에는 한국전통문헌센터에서 제작한 부석사(1398년) 강화도 선원사에서 서울 지천사, 고령 개경포를 거쳐 해인사로 팔만대장경을 이운하는 행렬을 재현하는 등 4일간 다채로운 목판인쇄문화체험 행사가 꾸며질

예정이다.

특히 해인사 스님 100여명을 비롯해 1000여명의 대중이 동참하는 팔만대장경 이운행렬은 참가자를 공모해 일반인의 참가도 가능하다. 또, 10월 9일 오후 7시 30분부터 향강체육공원의 유등대에서 열리는 유등제는 강물이 등을 떠울 수 있도록 가운데 다리를 놓아 강으로 걸어들어 가는 듯한 환상적인 광경을 연출할 계획이다. 그 외 원목가공 및 목판 성형, 목판·목각 전시, 장승 및 솟대 제작 시연 및 체험 등 목판인쇄 관련한 각종 전시 체험 행사가 펼쳐진다. (055)931-8133

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비상대책위 통해 해결키로

‘통도사 젊은 승가회’ 9일간 단식 회향

‘통도사 젊은 승가회’ 소속 스님들이 9월 28일 9일간의 단식을 회향했다.

9월 20일부터 현문 스님의 통도사 주지 직무대행 사퇴를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갔던 ‘통도사 젊은 승가회’ 소속 스님 3명은 28일, 현문 스님을 면담한 자리에서 ‘동안 거 전까지 주지직무대행을 사퇴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단식을 회향했다.

이날 젊은승가회 소속 스님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현문 스님은 “영축 총림 정상화를 위하여 전 문도를 초월하여 비상대책위원회(가칭)를 빠른 시일안에 구성하고 차기 주지 직무대행을 선출해 통도사 현안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며 동안거 결제전에 사표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통도사 젊은승가회’ 스님들은 28일 ‘9일간의 단식 정진을 회향하며’라는 성명서를 내고 그동안의 참회정진과 단식 정진 일체를 회향하고 본분사로 돌아가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통도사는 10월 4일 구하문도회를 개최한 이후 문증을 초월한 비상대책위를 꾸리고 차기 주지직무대행을 선출한 뒤 늦어도 동안거 전에는 인수인계를 마무리하게 될 예정이다.

천미희 기자

성철스님 열반 12주기 추모 세미나

근현대 한국불교의 전통 인식과 성철스님의 선사상

성철스님은 일제 시대 초기에 이 땅에 태어나시어 한국전쟁과 70, 80년대를 겪는 등 격동의 시대를 살다 가셨습니다. 스님의 사상 역시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근현대 한국 불교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님의 저작을 중심으로 스님의 사상을 근현대 한국불교의 전통 인식의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대표 저술에 나타난 선 사상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면면히 흐르는 한국 불교의 전통성을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 일시 · 2005년 10월 12일(수)

■ 장소 · 부산 중구 중앙동 고심정사

■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백련불교문화재단

■ 주관 · 고심정사 불교대학

■ 후원 · 문화관광부

10:00 등록
10:10 개회식
10:30 제1발표 김영옥(가산불교문화연구원)
“『본지종광』역주: 그 틀과 방향에 대한 시론”
11:10 제1논평 및 토론
11:40 점심 공양
13:10 제2발표 서명원(서강대 교수)
“『선분정보』의 전통 인식”
13:50 제2논평 및 토론
14:20 제3발표 서재영(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백일법문』의 전통 인식”
15:00 제3논평 및 토론
15:30 휴식
15:50 제4발표 석길암(한국불교연구원)
“성철 돈오돈수의 전통 인식: 화엄 및 통불교론과 관련하여”
16:30 제4논평 및 토론
17:00 종합토론
18:00 폐회

성철대중사 열반 12주기 추모 칠일칠야 참회법회 / 남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철 대중사 열반 12주기를 맞이하여 칠일칠야 팔만사천배 참회법회를 갖습니다.

성철 큰스님께서 “불교의 자비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베푸는 것이니, 남을 위해, 일체 중생의 행복을 위해 참회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스님 자신이 12년이 되었지만 생전의 그 큰 가르침은 세월이 더할수록 어두운 눈을 조금씩 닦아가려는 저희들에게는 크나큰 위안이자 복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인사 백련암 고심원에서는 올해도 “남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큰스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일주일 동안 팔만사천배 참회법회를 갖습니다. 남을 나처럼 소중히 여기고, 남의 종교를 나의 종교처럼 존중하고, 남의 나라를 내 나라로 생각하고, 아픈 사람을 내 몸처럼 보살피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두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나의 일천배가 못 중생을 위한 팔만사천배의 회향이 되도록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입재 · 2005년 10월 15일(음 9월 13일), 토요일 오전 7시

● 회향 · 2005년 10월 22일(음 9월 20일), 토요일 오전 7시

● 3천배 참회기도 · 2005년 10월 21일, 오전 10시, 큰스님 사리탑

● 추모제 · 2005년 10월 22일, 오전 10시, 해인사 대적광전

● 기도방법 · 매 두시간 단위로 일천 배가 이어져 팔만사천배가 이루어집니다.

● 동참방법 · 누구든지 원하는 날 원하는 시간을 선택하면 언제든 동참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 상하 법복, 수건, 세면용품 등을 준비하십시오.

● 등록금 · 50,000원 이상(농협 843174-51-010195 여부)

● 부산에서 매일 오전 6시 서면 (구) 대야관광호텔 앞에서 관광버스가 출발합니다.

● 문의 · 백련암 (055) 932-7300

문의 : 성철선사상연구원 (www.songchol.net) · 02) 2198-5372, academy@songchol.net